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 돌아오지 않아
그를 기다려 저녁 한길로 나가보니
보오안 초생달은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고
느릅나무 그늘 새로 화안히 불밝힌 우리 집 영머리엔
복두성좌의 그 찬란한 보국(譜局)이 신비론 ㉠ 꽃대처럼 지켜
있나니
때로는 하나이 병으로 높고
또는 구차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도련도련 이뤄지는 너무나 의고(擬古)*한 단란을
먼 천상(天上)에선 ㉡ 밤마다 이렇게 지켜 있고
인간의 수유(須臾)*한 영위(營爲)*에
우주의 무궁함이 이렇듯 맑게 **인연 되어 있었나니**
아이야 어서 돌아와 손목 잡고
복두성좌가 지켜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 유치환,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

- * 의고: 옛것을 본뜬.
- * 수유: 짧은 시간.
- * 영위: 일을 꾸려 나감.

(나)

냉장고 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온순히 꽃혀 있지,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순 없을 것 같애

교의선을 타고 갈곳없이 방향하던 무렵,
어느 시골 국민학교 앞에서
초라한 행상아줌마가 팔고 있던
수십 마리의 그 노란 **병아리들**,
마분지곽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마분지곽 위로 ㉣ 보글보글 기어오르던
그런 노란 것들이
(생명의 중심은 그렇게 따스한 것)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모습이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나의 눈에 문득 눈물처럼 다가와 고이고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화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아아, 얼마나 슬픈가,
차가운 냉장칸 맨 윗줄에서
달걀껍질 속의 흰자위와 노른자위는
무슨 꿈들을 꾸고 있을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에서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흰자위와 노른자위도
무슨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하얀 문을 조용히 열면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엄마 엄마 안아줘요 따스한 품속에
어미답애 안기지 못하고 만 **달걀들**처럼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더 ㉤ 싸게 팔려온
너희들처럼
나도 역시 여권이 분실된 사람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지,
- 김승희, 「달걀 속의 생(生) 2」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⑤ 축약적 심상의 대비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 ~ ㉤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면 '복두성좌'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가 밤에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허기를 느끼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보면 '너희들'은 금전적으로 평가 절하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우리 집'은 화자가 (A)으로 활용된 소재이고, (나)의 '냉장고'는 화자가 (B)로 활용된 소재이겠군.

- ① A: 현실에서 외면하고자 하는 공간
B: 이상 실현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근거
- ② A: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
B: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
- ③ A: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공간
B: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계기
- ④ A: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
B: 현실에 만족감을 표시한 이유
- ⑤ A: 과거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간
B: 현재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려는 동기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시적 화자는 일반적으로 일인칭에 해당하며, 시적 대상 혹은 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한다. 시적 대상은 보통 시적 화자가 아닌 존재인데,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의미한다.

-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이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는 ‘저녁 한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시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나)에서는 ‘부화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에서는 화자가 ‘보요얀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을 시각적으로, (나)에서는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각적으로 나타내어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에서는 화자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통해 ‘학교’ 간 아이를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상황을, (나)에서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입원비 걱정을 하는’ ‘우리’를 통해 ‘형제들’이 ‘가난’하다는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에서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인연 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을 통해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은,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한 ‘나’를 통해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군.

[5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고 있다.

먼저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

증거능력의 요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의 세 가지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 이 원칙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한 파생증거, 곧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배제된다. 이를 독수과실이론이라 하는데,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가 독에 오염된 나무라면 그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는 그 나무에 달린 독 열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라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물론, 그 진술의 도움으로 찾아낸 물증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수사 방법이 ㉢ 자백을 얻어 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며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주체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전문 증거란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진술과 서류인 전문서류가 있다.

전문증거는 진술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견, 조작의 [A] 우려가 있다는 점,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이 ㉣ 전문법칙의 근거로 꼽힌다. 다만 전문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를 ‘증거동의’라고 한다.

한편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뜻한다. 증명력 평가는 증거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으로, 증거능력 평가가 증거능력의 유무만을 가리는 것과는 구별된다. ㉤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명력이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이때 법관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해야 하며, ㉦ 단순한 자의적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법관은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도 있다.

* 임의: 자기 의사대로 처리하는 일.

5.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증명력 판단의 주체
- ②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 ③ 자백배제법칙의 종류
- ④ 독수과실이론의 적용 사례
- 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목적

6.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고인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이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인 경우
- ② 수사 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결국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된 경우
- ③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이지만 그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 ④ 불법적인 수단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억지로 얻어냈지만 결국 진술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
- ⑤ 증거동의를 받은 전문증거가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담고 있다고 법원에 인정된 경우

7. <보기>는 밑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사건 요지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화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됨.
- 수사 기관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증거 1] 유효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화약류
 [증거 1-1] 증거 1을 기초로 획득한 압수물 사진
 [증거 2]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증거 3] 법정에서 이루어진 목격자 증인의 진술
- 법원 판결 요약
[증거 1]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고, 이에 [증거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그 외 [증거 2], [증거 3] 등의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① 법원은 [증거 1]과 [증거 1-1]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겠군.
- ②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증거 1]과 [증거 1-1]을 자료로 사용했겠군.
- ③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 1-1]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겠군.
- ④ 법원은 [증거 2]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했겠군.
- ⑤ 법원은 진술증거인 [증거 2]와 [증거 3]을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보았겠군.

8. [A]를 바탕으로 다음의 ㉡와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 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을 담은 전문증거가 이에 해당된다.

- ① ㉡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의 진술이 담긴 전문진술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 ② ㉡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원래의 진술이 법정에서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군.
- ③ ㉢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 ④ ㉢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법원이 진술자와의 문답을 통해 원래의 진술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군.
- ⑤ ㉡와 ㉢은 모두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9. 자유집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증거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법원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 ② 법원은 신빙성 없는 증인에 의한 증언도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증거를 선택할 수 있다.
- ④ 증거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⑤ 법원에 의해 서로 모순된다고 판단된 증거들은 어느 쪽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10. 밑글을 읽은 과정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한 법칙들의
- ② ㉡: 증명 자료로서 필요한 법률상 자격을
- ③ ㉢: 진술자의 임의성을 지키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 ④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 ⑤ ㉤: 단순히 자의적으로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11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틀니츠는 우리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미적 태도는 어떤 대상을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실제적 지각 태도와 다르다. 그가 말하는 미적 태도는 그것이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감상자가 지각하는 대상 자체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이다.

스틀니츠가 말하는 미적 태도에서의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비관심적’과는 다르다.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무엇을 ㉠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보이고 느끼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과를 볼 때, 어떤 지식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는 대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적’이라는 것은, 감상자가 대상에 반응할 때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감상자는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신념이나 편견과 같은 반응은 억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상이 감상자에게 흥미롭게 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 특정 신을 찬미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각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다르다고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공감적이지 못한 것이다.

끝으로 ‘관조’란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감상자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조는 활동과 함께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례로 음악을 듣는 감상자가 음악에 집중하여 멜로디를 따라 손으로 장단을 맞추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며 활동하는 것이 관조가 의미하는 바의 전부는 아니다. 대상의 독특한 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 식별력이다. 즉, 식별력을 갖추고 관조한다면 더욱 풍부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식별력은 반복해서 예술 작품을 경험하거나, 작품에 드러나는 표현 기법이나 작품의 구성 요소와 같은 지식에 대해 공부하거나, 예술 형식에 대한 기술적 훈련을 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

(나)

비어즐리는 미적 대상이란 예술 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적 대상이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고 말하며, 오직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들에 근거하여 미적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는 객관주의적 입장을 ㉢ 취한다. 그래서 그는 ‘구분의 원리’와 ‘지각 가능성의 원리’를 통해 예술 작품에서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미적 대상에서 배제한다.

먼저 비어즐리는 구분의 원리를 제시하며,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의 미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그는 예술 작품의 속성이 미적 대상이 되려면 그 예술 작품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그는 예술 작품과 구분되는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작품의 속성이 될 수 없어 미적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각 가능성의 원리는 예술 작품의 어떤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만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어즐리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데 전혀 지각될 수 없거나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들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미적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에 대해 ‘이 그림은 상쾌한 색조와 흐르는 운동감이 있다.’라고 했다면, 이는 그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미적 대상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은 유화 물감을 재료로 사용하였다.’나 ‘이 그림은 1892년에 창작되었다.’라고 했다면, 이는 그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물리적 측면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비어즐리는 이 원리들을 종합하여 예술 작품의 속성 중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을 밝히며, ㉣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예술 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객관적인 속성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였다.

11.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학생의 응답	
		예	아니요
①	(가)는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
②	(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론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나요?		✓
③	(나)는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나요?	✓	
④	(가)와 (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활용하고 있나요?	✓	
⑤	(가)와 (나)는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나요?		✓

12. <보기>는 ㉣의 관점에서 ㉠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조각 작품에 담긴 특정 신을 찬미하려 한 예술가의 의도는, (㉡)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술 작품과 (㉣)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의 의도는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한 속성으로 볼 수 (㉢).

	㉡	㉢	㉣
①	객관적	구분	없다
②	객관적	종합	있다
③	객관적	구분	있다
④	공감적	종합	없다
⑤	공감적	구분	있다

13. (가)의 ‘스틀니츠’와 (나)의 ‘비어즐리’의 입장에서 <보기>의 A와 B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p style="text-align: center;">A</p>	 <p style="text-align: center;">B</p>
--	--

A는 특정 회사가 실제로 제품을 담아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종이 상자로 예술 작품이 아니지만, B는 현대 미술가 앤디 워홀이 A의 모양을 그대로 복제하여 ‘브릴로 박스’라는 제목으로 1964년에 창작한 설치 미술 작품이다.

- ① 스틸니츠는 A는 예술 작품이 아니지만, 감상자가 A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간적으로 관조한다면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스틸니츠는 B는 실제적 지각 태도로 감상해야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비어즐리는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로는 B를 미적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비어즐리는 B가 창작된 연도는 미적 대상이 되는 작품의 속성이 아니라고 보겠군.
- ⑤ 비어즐리는 A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B에서의 물리적 측면도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을 구조화한 것이다. 14번과 15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서 동기	주제별 체험학습에서 ‘미적 대상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표현주의 연극을 보고 왔다. 친구들과 나는 연극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 예술 작품들이 지닌 독특한 가치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궁금해졌다.
-------	--

독서 과정	학생의 활동
읽기 전	독서 목적 확인하기, 경험을 떠올려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읽기 중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자기 말로 바꾸어 말해 보기
↓	
읽기 후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생각하기

14. 학생이 ‘읽기 중’ 단계에서 활동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글은 모두,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규정되는 미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두 글은 모두, 예술 작품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글은 모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미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두 글은 모두, 감상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감상해야 예술 작품은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두 글은 모두, 예술 작품이 미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상자와 예술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5. 학생이 ㉠을 해결하기 위해 (가)의 내용을 적용하여 ‘읽기 후’ 활동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프랑스 상징시를 감상하기 위해 상징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기
- ② 표현주의 연극을 감상하기 위해 해당 연극을 반복해서 관람하기
- ③ 평시조를 감상하기 위해 평시조의 형식에 맞춰 창작하는 훈련하기
- ④ 사실주의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기
- ⑤ 교향곡을 감상하기 위해 곡의 섬세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 발휘하기

16. 다음 중 (가)의 ㉠과 (나)의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그녀는 정당한 이득을 취했다.
 ㉡: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 ② ㉠: 그녀는 급하게 연락을 취했다.
 ㉡: 나는 그가 준비한 선물들 중에서 가장 새것을 취했다.
- ③ ㉠: 군인들은 차려 자세를 취했다.
 ㉡: 어머니는 숙면을 취하고 계셨다.
- ④ ㉠: 정부는 실리적인 대외 정책을 취했다.
 ㉡: 그가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 ⑤ ㉠: 친구는 퇴원 후 조금씩 음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 그는 당장에라도 일어설 자세를 취했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늡음은 시조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화제 중 하나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를 화제로 삼는 시조들에서 화자는 늡음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서글피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늡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나 삶을 즐기며 늡음에 대한 서글픔을 잊고자 하는 화자가 작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가)

나의 미평(未平)흔 뜻을 일월(日月)세 못줍느니
구만 리(九萬里) 장천(長天)에 무스 일 빙얏바서
㉠ 주색(酒色)에 못 슬핀* 이 몸을 수이 늡게 흐느고

*슬핀: 슬고 미운.

(나)

굴 세는 청산(靑山)이러니 올 세 보니 황산(黃山)이로다
㉡ 산천(山天)도 변헝거든 낸들 아니 늡음쇼나
㉢ 두어라 저리 될 인생(人生)이니 아니 늡고 어이리

(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다 노기니
㉣ 사면(四面) 청산(靑山)이 네 얼골 나노되라*
귀밧테 히무근 ㉤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나노되라: 나타나는구나.

(가) ~ (다)는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늡음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가)는 무한히 지속되는 자연물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자연의 변화에 인간의 노화를 견주어 표현하고 인생을 즐기므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다)는 화자의 상태를 자연에 비유하였지만 순환하는 자연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 늡음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늡음을 노래하는 작품들 중에는 자연물이 아닌 타자를 동원하여 그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라)

청춘(靑春) 소년(少年)드라 백발(白髮)노인 웃지마라
㉥ 공변된* 하늘(하늘)아리 낸들 얼마 저머시리
우리도 소년행락(少年行樂)이 어제론듯 흐여라

*공변된: 치우침이 없는.

(마)

늡기 설은 줄을 모로고나 늡거는
㉦ 춘광(春光) 덧업서 백발(白髮)이 절노 난다
그러나 소년(少年)씩 ㅁ음(ㅁ)은 감(減)홈이* 업세라

*감홈이: 줄어든 적.

(바)

세월(歲月)이 여류(如流)흐니* 백발(白髮)이 절노 난다
썩고 썩 썩아 꺾고져 흐느 뜻은
북당(北堂)에 유친(有親)흐오시니* 그를 두려 흐노라

*여류흐니: 물의 흐름과 같으니.

*유친흐오시니: 어머니께서 계시니.

(라)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소년들에게도 세월이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마)는 덧없는 세월로 인해 늡어 버린 현재의 육신과 대비되는 소년 시절의 마음을 타자화하여, 늡어서도 소년 시절과 같은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바)는 늡음의 문제를 자신이 모시는 어머니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데, 자신보다는 북당에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효를 실천하는 화자의 성숙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 ~ (바)의 시조들은 자연물과 타자를 통해 늡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였다. 단, 이때 타자에는 타자화된 자아도 포함된다. 자연물과 타자를 세계로, 화자를 자아로 규정한다면 세계와 자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에 주목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유사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함께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으나 인간의 삶이 유한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노년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삶을 즐기므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는 인정하면서도 늡음에 대해 한탄하던 자신을 후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세월의 흐름은 공평하여 누구나 늡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18. (가) ~ (마)를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따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일월'과 '장천'은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군.
- ② (나)에서 '청산'은 '황산'으로의 변화를 통해 화자와 유사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이 나타나고 있군.
- ③ (다)에서 '적설'은 '동풍'이 불기 전에는 화자와의 유사점이, 불고 난 후에는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 ④ (라)에서 '소년'은 '소년행락'의 시절이 유한하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행락'의 시절을 현재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 ⑤ (마)에서 'ㅁ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 시절 이후와 다르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19. ㉔와 ㉕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대상이다.
 - ② 화자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다.
 - ③ 화자가 세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④ 화자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대상이다.
 - ⑤ 화자에 대한 타인들의 시선을 변하게 만든 대상이다.

20. ㉔를 바탕으로 (바)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월이 여류하니'를 보면 화자가 나이를 먹게 된 원인을 알 수 있겠군.
 - ② '백발이 절노 난다'를 보면 화자가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늙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뽑고 또 뽑아'를 보면 화자가 효를 실천하고자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접고져 흐는 뜻은'을 보면 화자가 어머니를 배려하고자 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복당에 유친호오시니'를 보면 화자가 봉양하는 어머니가 계신 장소를 알 수 있겠군.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 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옵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우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울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덕이온데, 장 시랑의 전후 부인 연씨는 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덕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중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

[A]

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慌忙 恐慌)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옵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慌)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역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덕을 찾아가** 사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께 뵈옵고 아뢰거늘,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불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덕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

그 머리를 안고 시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 자부: 며느리.
 * 존구: 시아버지를 높이는 말.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용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덕의 종이였습니다. 마침 주인덕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들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 살 적에 주인덕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눈발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 **원수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 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 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묻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걸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 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더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여 살아가리까?

- 안석경, 「검녀」 -

*기사: 기이한 선비.

2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풍자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서사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2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부’는 ‘노파’를 위로하는 척하며 궁극한 사실을 물었다.
- ② ‘유씨 부인’은 ‘연씨’의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 ③ ‘김씨’는 혼인한 날 밤에 자객에 의해 ‘신랑’을 잃었다.
- ④ ‘장 시랑’은 병을 핑계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김씨’를 들어오게 하였다.
- ⑤ ‘친정 부모’는 ‘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원통하게 여기는 한편으로 기뻐하였다.

23. [A]에 드러난 ‘노파’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② 미래의 성취를 확신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③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

2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위기에 처한 ‘소저’와 ‘저’가 몸을 숨긴 곳이다.
- ② ㉡: ‘소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저’와 함께 찾아간 곳이다.
- ③ ㉢: ‘소저’가 자신이 한 일을 죽은 부모에게 고한 곳이다.
- ④ ㉣: ‘저’가 ‘선생’과 함께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는 곳이다.
- ⑤ ㉣: ‘저’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려는 곳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김씨열행록」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며, 「김녀」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 ① (가)의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사랑 택을 찾아가’는 것에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김씨’가 ‘곳간 문을 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에 ‘이후의 일은 존구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기존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저’가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하는 것에서,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의 ‘저’가 ‘소저’의 당부에 따라 ‘산림에 은거하’는 ‘선생’을 찾아간 것에서,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사실을 밝혔’다는 것과 (나)의 ‘저’가 ‘남장을 하고’ ‘칼 쓰는 법을 익혔’다는 것에서, 남장한 여성이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찝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제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 머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물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 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

는 그만 가슴이 펼떡이고 전신이 찢터찢터해지는 것이다. ㉢ 절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뽕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리라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나는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갓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측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장만지 살갓이 험하게 부르토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건디는 것도 금년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갈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갯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제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예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월에 삼십에 오오,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년 거치 오년 상황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직한 연결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㉔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불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㉕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부오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조경래, 「동백」 -

26. ㉑과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과 ㉕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㉑은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㉕은 상황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 ② ㉑과 ㉕은 반어적 기법을 활용해, ㉑은 인물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㉕은 인물들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㉑과 ㉕은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 ㉑은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㉕은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㉑과 ㉕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㉑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㉕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⑤ ㉑과 ㉕은 과장된 서술을 통해, ㉑은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㉕은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27. ㉑ ~ 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모은 돈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분옥이가 느끼는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㉒: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분옥이가 느끼는 설렘을 엿볼 수 있다.
- ③ ㉓: 회사에 넣어둔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봉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엿볼 수 있다.
- ④ ㉔: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격정으로 인해 길순이가 느끼는 슬픔을 엿볼 수 있다.
- ⑤ ㉕: 경리과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알게 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여공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28. 유직한 연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마련하지 않았다.
- ② 여공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금액의 평균은 팔백만 원이었다.
- ③ 사채 동결로 인해 여공들은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목은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 ⑤ 사채 동결 이전 여공들은 원금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경리과에서 받았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등의 이유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진다.

- ① 분옥이가 칠만 원을 모아 미용 학원에 다니려는 것에서 돈을 벌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봉자가 오만 원만 모으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 도시로 이주한 봉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사장이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원금을 사년째 되는 해부터 찾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길순이가 내년부터 지옥탕이 아니라 신선놀이를 하게 됐다는 것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길순이가 바랐던 긍정적인 미래의 도래를 짐작할 수 있겠군.

[30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이나 그림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는 최소 단위의 점인 **화소**로 구성되며, 각 화소에는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값이 부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대신 저장되는 데이터의 용량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 주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에는 ㉠ 무손실 압축과 ㉡ 손실 압축이 있다. 무손실 압축은 압축 과정에서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압축 효율은 떨어지지만,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다. 반면 손실 압축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여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무손실 압축에 비해 수 배에서 수천 배 이상의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어 보편적인 압축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JPEG는 손실 압축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JPEG 형식의 압축은 크게 전처리, DCT,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첫째, 전처리 과정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과 ‘샘플링’이 이루어진다. 우선 디지털 이미지의 색상 모델을 RGB에서 YCbCr로 변경한다. RGB 모델은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화소의 색과 밝기를 함께 표현하는데, 변경된 YCbCr 모델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와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 Cr로 분리하여 화소의 정보를 표현한다. 색상 모델이 RGB 모델에서 YCbCr 모델로 변경되면, 화소들에서 일부 값만을 추출하는 샘플링이 진행된다. 인간의 눈은 밝기의 변화에는 민감하고, 색상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그래서 샘플링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는 모두 추출되고,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와 Cr은 인간의 눈이 색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추출된다. 이러한 샘플링은 화소들을 일정한 단위로 묶은 블록에서 J:a:b의 비율로 화소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J는 화소 블록의 가로 화소 개수를, a는 화소 블록 첫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를, b는 두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4:2:0의 비율로 색상 정보를 샘플링하면, 가로 화소의 수가 4개인 화소 블록 중 첫 번째 행에서는 색상 정보가 2개 추출되고, 두 번째 행에서는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는다. 결국 4×2 블록에 있는 여덟 개의 색상 정보 중 두 개의 정보만 추출되어 데이터의 용량은 줄어든다.

전처리 과정 후에는 DCT라고 불리는 변환 과정이 진행된다. DCT란 샘플링한 화소의 정보들을 주파수로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DCT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 8개, 세로 8개의 화소로 블록화된 행렬을 기본 단위로 진행된다. DCT가 수행되면, 인접한 화소들 간의 정보 차이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주파 성분은 행렬의 왼쪽 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은 행렬의 오른쪽 아래로 모여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행렬값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은 고주파 성분의 절댓값보다 크다.

다음으로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양자화 과정에서는 DCT로 얻은 행렬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반올

림하게 된다.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지만, 고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 이는 인간의 눈은 저주파 성분에는 민감하지만 고주파 성분에는 덜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은 줄이고 고주파 성분은 제거해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부호화는 양자화를 거친 행렬값을 이진수의 부호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허프만 부호화가 사용된다. 허프만 부호화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고, 드물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허프만 부호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비트: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최소 단위로서 0이나 1로 표현됨.

3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다 ㉡은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 ② JPEG는 ㉡이 적용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 ③ ㉠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하면 데이터의 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 ④ ㉠을 활용하여 압축된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다.
- ⑤ ㉡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한다.

31. 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소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 ② 화소는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③ 화소 수의 증감에 따라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다.
- ④ 화소의 정보는 밝기 정보와 색상 정보로 분리될 수 있다.
- ⑤ 화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제 1 교시

[35 ~ 37]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QR 코드에 대해 발표할 ○○○입니다. 최근 QR 코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나요? (사진 1을 보여 주며) 이 사진에서처럼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QR 코드는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QR 코드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QR 코드는 명암에 따라 빛의 반사량이 다르다는 원리가 이용된다는 점에서 바코드와 유사합니다. (표를 보여 주며) 하지만 표에 제시된 것처럼 바코드가 가로로 된 1차원적 구성이기 때문에 주로 간단한 숫자 정보만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달리, QR 코드는 가로와 세로의 2차원적 구성이어서 이미지나 동영상과 관련한 정보까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고) 보신 것처럼 QR 코드는 상품 홍보, 결제, 웹 사이트 연결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QR 코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2를 제시 하며) 우선 QR 코드는 밝은색과 어두운색 모듈들의 집합으로, 여기 가장 작은 한 칸의 사각형이 바로 모듈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진 2를 확대하며) 잘 보이시죠? 이런 모듈들로 구성된 QR 코드는 인코드화 영역과 기능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코드화 영역은 정보가 담긴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 수가 늘어날수록 인코드화 영역에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QR 코드의 크기도 커집니다. 모듈 수가 가장 많은 QR 코드 버전은 숫자는 7,089자, 한글은 1,817자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QR 코드가 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패턴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3을 제시하며) 여기 QR 코드 상단 양쪽 끝과 왼쪽 하단을 보시면 큰 사각형 형태들이 보이는데요. 이 세 개의 형태들은 QR 코드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어도 쉽고 빠르게 인식될 수 있게 해 주는 위치 탐지 패턴이라고 합니다. 위치 탐지 패턴은 QR 코드의 버전이 달라져도 크기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위치 탐지 패턴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은 사각형 형태를 정렬 패턴이라고 합니다. 정렬 패턴은 QR 코드가 곡면 등에 인쇄되어 일그러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탐지 패턴 사이의 밝은색과 어두운색 모듈이 하나씩 교대로 나타나는 부분을 타이밍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은 다른 모듈들의 위치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QR 코드의 버전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QR 코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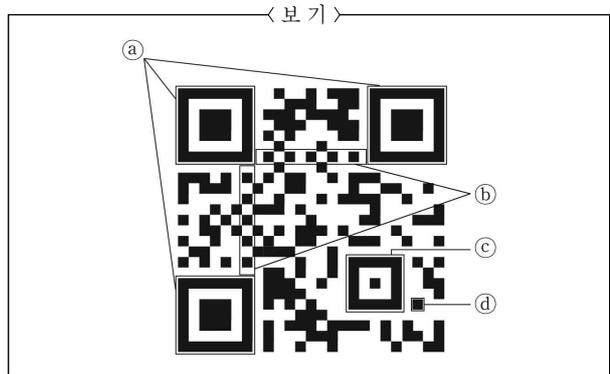
- ① 발표 제제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② 발표를 통해 배운 점을 실천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발표 제제의 선정 이유를 도입 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중간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 ⑤ 발표를 마치며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를 위해 준비한 분석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의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제제의 특성 분석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 바코드의 원리와 비교 가능함.
청중의 특성 분석	㉢ QR 코드의 용도를 궁금해함. ㉣ QR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름.
발표 장소의 특성 분석	㉤ 교실 구조상 자료 화면이 뒤쪽까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① ㉠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QR 코드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고 있다.
- ② ㉡을 고려하여, QR 코드와 바코드는 빛을 이용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 '표'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을 고려하여, QR 코드의 다양한 용도를 알려 주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 ④ ㉣을 고려하여, QR 코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진 2'와 '사진 3'을 활용하고 있다.
- ⑤ ㉤을 고려하여, 교실 뒤쪽까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2'의 크기를 조절하여 활용하고 있다.

37.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가 있어 거꾸로 놓여 있는 QR 코드도 빠르게 인식될 수 있겠군.
- ② b를 통해 d의 위치 정보와 QR 코드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c가 있어 등근 유리병 표면에 부착된 QR 코드도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겠군.
- ④ d의 수가 늘어나 QR 코드 크기가 커지면 a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군.
- ⑤ a, b, c는 모두 QR 코드가 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패턴들이겠군.

[38 ~ 41] (가)는 고전 읽기 동아리 활동 중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3'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지난번 모임에서 오늘은 '홍길동전'과 영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우선 한 명씩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자. (학생 2를 가리키며) 먼저 이야기해 볼래?

학생 2: 나는 홍길동이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에서 영웅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했어.

학생 3: 나도 홍길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에서는 영웅적인 면모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홍길동의 행동을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홍길동이 강제로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고, 그건 잘못이잖아.

학생 2: 당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서서 부정부패한 세력에 저항하는 소설 속 홍길동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를 도적이 아닌 의적이라고 불렀던 것이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홍길동전'이 고전으로 읽히는 것도 그런 홍길동의 행동이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서라고 생각해.

[A]

학생 3: 물론 많은 사람들은 권력층의 부당한 횡포를 저지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홍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응원했겠지. 하지만 법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법을 어긴 홍길동의 행동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학생 1: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점에서 홍길동에게 영웅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은 둘 다 인정하지만,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학생 3을 가리키며) 이번에는 네가 먼저 얘기해 볼래?

학생 3: 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건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 홍길동이 진정한 영웅이라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정의로워야 해.

학생 2: 진정한 영웅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영웅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와 생각이 좀 달라. 나는 홍길동의 행동이 사회 규범에 어긋났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용기 있는 그의 행동은 정의로웠다고 생각해.

[B]

학생 1: 너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은 사회적 규범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구나. 혹시 더 할 말 없어?

학생 2: 얼마 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한 용감한 시민에 대한 방송을 봤어. 물론 선로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법을 어긴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영웅이라고까지 하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학생 3: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소설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학생 1: 그러면 오늘 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홍길동전'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다음 모임 때 발표해 보자.

학생 2, 3: 좋아.

(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영웅'이라고 하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홍길동전'의 주인공 역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정부패한 권력층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 불의에 맞서 의적 활동을 펼쳐 영웅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나는 홍길동이 진정한 영웅이 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홍길동은 법을 어기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어겨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보니 불가피하게 사회 규범을 어겼지만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 역시 그의 정의로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홍길동도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설이 아닌 현대 사회 속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소설 속 홍길동이 발휘한 용기에 주목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오늘날 용기는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재난 현장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먼저 구해 주는 분들의 희생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분들의 봉사는 용기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동아리 활동은 '홍길동전'과 영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이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 주변의 진정한 영웅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38. 다음은 '학생 1'이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동아리 활동 시작
 - 지난 활동에서 결정된 주제 환기하기 ①
 - 발언자의 순서를 지정하기 ②
- ◎ 동아리 활동 진행
 -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생각을 유도하기 ③
 - 대화의 내용 정리하기 ④
- ◎ 동아리 활동 마무리
 - 다음 모임의 활동 내용 제안하기 ⑤

39.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학생 2’는 질문을 통해 ‘학생 3’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 ② [A]의 ‘학생 3’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③ [B]의 ‘학생 2’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측하면서 ‘학생 3’이 제시한 정보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A]의 ‘학생 2’와 [B]의 ‘학생 3’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지닌 타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A]의 ‘학생 3’과 [B]의 ‘학생 2’는 모두 상대방이 한 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40. ‘학생 3’이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영웅의 일반적 의미를 설명하며 다른 영웅보다 정교로운 홍길동의 행동을 부각해야겠군.
 - ② (가)에서 언급된 「홍길동전」의 내용을 활용하여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돕는 홍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③ (가)에서 언급된 정교함에 대한 ‘학생 2’의 견해에 공감하며 홍길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드러내야겠군.
 - ④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오늘날의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군.
 - ⑤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활동의 의의를 강조해야겠군.

41. 다음은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해 학생들이 조언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번 동아리 활동은 「홍길동전」과 영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전을 읽으면 현대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 주변의 진정한 영웅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 ①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된 어휘 중 하나를 삭제하는 건 어때?
- ② 주제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을 삭제하는 건 어때?
- ③ 너의 생각이 확장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추가하는 건 어때?
- ④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심한 내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때?
- ⑤ 제목과 관련해 앞 문단에서 제시한 너의 생각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누락된 내용을 찾아 추가하는 건 어때?

[42 ~ 45] (가)는 교지에 실린 조사 보고서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학교 신문에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면’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과 실태 조사

I. 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수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수면에 대한 인식 및 수면의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II. 본론

1. 수면에 대한 인식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85%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91%의 학생이 ‘피로를 풀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2. 수면 실태

실태 조사는 앞서 수면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항목을 각각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하루에 6시간 이상 잠을 자는가?’라는 질문에 61%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휴대폰 사용(62%), TV 시청(20%), 공부(16%), 기타(2%) 순으로 답변했다.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잠을 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면 후 충분히 피로가 풀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75%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92%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III. 결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면의 양이 부족하고, 수면의 양이 부족하지 않은 학생들도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 61%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외국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인 학생들도 수면 후 충분히 피로가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우리 학교에는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학생들이 많아 수면 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몸은 적절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게 되면 피로해진 몸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소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수면 계획을 세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방해하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한다. 수면의 질은 수면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잠과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취침 전에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

잠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 학교에서는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42. 다음은 (가)를 쓰기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구분	내용
설문 조사 계획	-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해야겠어. ①
	- 설문 항목을 학생들의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로 구성해야겠어. ②
	-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에 대한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을 제시해야겠어. ③
보고서 작성 계획	- 서론에 조사 배경을 언급해야겠어.
	- 본문에 설문의 응답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제시해야겠어. ④
	- 결론에 수면 실태가 수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야겠어. ⑤

43.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통계 자료

㉠ 국가별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

국가	평균 수면 시간
한국	6시간 3분
일본	7시간 30분
미국	8시간 12분
OECD 평균	8시간 22분

㉡ T세포 활성화 수치

T세포: 인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백혈구 내 세포

[자료 2] 연구 자료

생체 호르몬의 일종인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어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저하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 기기 화면에서 방출되는 빛에 2시간 노출되었을 때 멜라토닌의 분비가 노출 전보다 22% 정도 억제된다고 나타났다.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카페인 함유된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의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카페인은 뇌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인 아데노신의 활성을 방해하는데, 이로 인해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지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자다가 깨는 빈도를 높여 수면의 질도 낮춥니다. 따라서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 ① [자료 1-㉠]를 활용하여, 외국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에 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멜라토닌 분비량이 빛과 관련이 있으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 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자료 1-㉠]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증가시켜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책으로 추가한다.

44. <조건>에 따라 ㉠을 위한 캠페인 문구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건 >

- ㉠에 제시된 교육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자는 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 ②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해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③ 수면 시간을 줄이면 여러분의 몸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 ④ 잃어버린 수면의 질은 결국 당신의 건강을 앗아갑니다.
- ⑤ 달님도 꿈꾸는 늦은 밤에 당신도 꿈꾸고 있나요?

4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문제 상황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글쓴이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